

“무선트래픽 폭증에 마이크로웨이브는 보험”

김우용 기자 yong2@zdnnet.co.kr

2010.05.23 / PM 05:42

[넷이벤츠](#), [엑셀트](#), [마이크로웨이브](#)

[AD]핵심 IT인프라 최적화 및 보안강화솔루션을 경험해보세요!

[AD]사장님 몰래 Alt+Tab 실행으로 즐기는 삼국지 게임은?

[\[지디넷코리아\]](#) [싱가포르=김우용기자]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모바일 백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마이크로웨이브 백홀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넷이벤츠 2010 프레스 서밋’에 참석한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전문회사 엑셀트(Exalt)의 아미르 주포논 CEO는 20일 싱가포르 한국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백홀은 일종의 보험”이라며 “전용회선 백홀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시장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오늘날 통신환경은 빠른 속도로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한다. 또한 통신기술이 4세대(4G)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서 많은 용량증가 요구가 발생한다. 음성 트래픽만을 관리하던 과거에는 약간의 설비확충만으로 백홀기능이 충족됐지만 이제는 네트워크 부담이 과다해 설비자체의 변화가 요구된다.



▲ 아미르 주포논 CEO

아미르 주포논 CEO는 “과거 통신사업자들은 1년에 200억~300억 달러의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전용회선 백홀라인 임대 투자가”라며 “전용선 임대를 통한 용량 확장은 이제 최대 200배까지 증가했고 비용때문에라도 수용하기 힘든 방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마이크로웨이브 백홀이 비용절감 면에서 강점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비용이 급격히 감소해 전용회선 기반 백홀의 비용보다 비용부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설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적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은 작은 장비를 건물 벽면이나 외부 기지국 일부분에

장착하기 때문에 하루면 곧바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아미르 주포논 CEO의 주장이다.

실제로 광케이블을 이용한 전용회선 백홀은 정부기관의 허가와 매설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진다.

한국시장에서는 섬과 같은 도서지역에서의 가능성이 높다. 아미르 주포논은 “섬을 연결하려면 해저광케이블을 이용해야 한다”라며 “마이크로웨이브는 한국에서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공사와 관리, 유지 면에서 강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시장은 광케이블 보급률이 높아 시장이 크진 않다”라며 “다만 마이크로웨이브가 가격이 저렴해 광케이블의 백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액셀트는 2004년 설립돼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다.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으며 통신업체나 엔터프라이즈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트랙백 주소 :

<http://www.zdnet.co.kr/Reply/trackback.aspx?key=20100521163720>